

제7차 중·미 전략 및 경제대화 개최

■ 제7차 중·미 전략 및 경제대화(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: S&ED)가 6월 23~24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됨.

- 중·미 S&ED는 경제는 물론 정치, 안보,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경제대화(SED)와 고위급 대화(SD)를 합쳐 대화의 레벨과 의제를 격상·확대시킨 것으로, 2009년 제1차 대화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6차례 열렸음.

- S&ED는 전략트랙과 경제트랙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는데, 전략트랙에서는 정치·안보 이슈를, 경제트랙에서는 경제·통상·국제금융 이슈를 논의함.

○ 경제트랙에는 양국 19개 경제 관련 부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

■ 제7차 중·미 S&ED 경제트랙에서 양국은 경제정책 공조 강화(8개), 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(20개),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(9개),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(12개) 분야에서 총 49개 세부 항목에 대해 논의와 합의를 도출함.

- 특히 양국간 투자협정(BIT) 협상,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및 통계의 투명성 제고 분야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(<표 1> 참고).

표 1. 제7차 중·미 S&ED 경제트랙 주요 논의사항

분야	주요 내용
경제정책 공조 강화	- 중국,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의 경우에만 시장개입, 환율제도 개혁 지속, 금리시장화 개혁 지속 - 내수 주도 성장을 위한 조치 시행, 중앙 및 지방정부 자본예산 운영 투명성 제고
무역 및 투자 개방 촉진	- 양국은 BIT 협상을 심화하고, 9월 초까지 수정된 '네거티브 리스트' 제안서 교환 합의 - 양국은 ICT 관련 정보보안 규제 강화 합의(투명성 제고, 은행전산망 보안 강화) - 지방정부 및 도시간 경제협력 촉진 합의
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	- 양국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관리·감독, 개혁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, G20, 금융안정위원회(FSB) 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. - 중국,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약속;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내 외국금융기관의 합작증권사 설립 및 선물회사 설립 허용, 외국인 소유 사모펀드사 설립 허용,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지방채 신용등급 평가 허용 - 양국간 증권·파생상품시장 관련 정보교환 및 규제협력 강화
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	- 기존 합의사항 재확인(다자체제 협력강화, 하기로 함). - 중국, 통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 말까지 IMF 특별통계공표기준(SDDS)에 따라 경제 지표를 발표하기로 합의

자료: 미 재무부(2015). "U.S.-China Strategic & Economic Dialogue Joint U.S.-China Economic Track Fact Sheet".

■ 그동안 개최된 중·미 S&ED는 광범위한 주요의제의 반복으로 인한 논의의 구체성 결여, 합의사항 이행 점검 체계 미비 등의 한계점을 갖고 있으나 한국의 입장에서

중·미 S&ED가 시사하는 긍정적 요인에 주목해야 함.

- S&ED를 통해 양국이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조율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경우,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의미가 있음.

표 2. 제1~6차 중·미 S&ED 경제트랙 주요 논의내용 비교

구 분	주요 의제 및 합의내용
제1차 S&ED (워싱턴 DC, 2009. 7. 27~2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추진 - 투명하고 개방적인 금융시스템 구축; 금융위기 재발 방지 노력 -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; 무역 및 투자 시스템 개방 노력, 보호주의 반대 -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기능 강화
제2차 S&ED (베이징, 2010. 5. 24~2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회복 강화와 균형성장 촉진 - 양국간 무역 및 투자확대 협력 합의 -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-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
제3차 S&ED (워싱턴 DC, 2011. 5. 9~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촉진과 경제협력을 위한 포괄적 합의' 발표 -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- 금융시스템 강화와 금융감독 개선
제4차 S&ED (베이징, 2012. 5. 3~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거시경제 정책 공조 강화 -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촉진; BIT 협상 추진 노력, 중국의 WTO GPA 가입 논의 지속 약속 - 국제규범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-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; 중국,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을 확대하기로 약속
제5차 S&ED (워싱턴 DC, 2013. 7. 10~1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정책 공조 강화; 양국은 환율 유연성 제고하기로 약속 -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촉진 · 양국 BIT 협상 방식을 '네거티브 리스트'로 합의,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서비스 개방 -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 -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; 금리 자유화, 금융시장 개방 확대
제6차 S&ED (베이징, 2014. 7. 9~1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제정책 공조 강화 · 양국, 환율 유연성 제고하기로 약속(중국, 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환율개혁 지속) - 무역 및 투자 개방 확대 촉진 · 정보기술협정(ITA)협상 재개 논의, BIT 협상 일정 제시, 중국 서비스시장 점진적 개방 - 글로벌 협력 및 국제규범 강화; 다자체제(G20, APEC 등)내 양국 협력강화 - 금융시장 안정 및 개혁 추진; 금융시스템 관리감독 강화,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확대

자료: 미 재무부의 "제1~6차 미·중 S&ED 경제트랙 Fact Sheet"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.

- 중·미 S&ED 결과 양국간 BIT 협상 진척,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바, 이로 인해 대중 외국인투자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.

- 이에 양국간 BIT 체결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·중 FTA 서비스·투자 분야 관련 후속 협상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,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분야에 대한 대중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.¹⁾

(나수엽 전문연구원)

1) 한·중 FTA 협상 결과(2015.6.1 정식서명) 서비스·투자 분야는 일단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,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후속 협상 개시를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.